

목어 냉이맛이 말한다



생명현상에 신비롭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랴마는 이른 봄 차가운 눈 속에서 파란 싹을 내미는 머위 등, 봄나물들의 생명력 또한 불가사의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봄나물의 대표격인 냉이는 겨울에 강한 식물로 열도 많다. 따라서 더운 여름엔 잎이 말라 흔적을 찾기 어렵다. 초여름에 낙엽 지는 풀이라 할까. 가을에 생겨나 온 겨울을 접어들면서 검은 보라색으로 변해 땅에 납작 달라붙는다.

그래서 냉이의 맛과 향은 지난 겨울의 추위와 비례하는 것인지 모른다.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지방인 이 땅에서 봄철 냉이 맛은 어떠한 환경 건강의 수치를 짚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자(언론인·본지 논설위원)

“인간과 자연 지혜로운 조화 필요”

불자 세상보기

미국에 있을 적에 국립공원으로 유명한 옐로우스톤을 간 일이 있다. 지금까지 그 곳이 인상에 남아 있는 것은 공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이다. 우리가 그곳에 가기 몇 년 전 다 산불이 발생했는데 의문스러운 것은 보기에 흉한 불 탄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심각한 문제는 스위스 취리히 등 상위에서 오든 도시들이 모두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윤리란 공동체 사회에서 한 규범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와



이만 동국대 교수 불교학과

본리(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또 구둣발 법당침입 '경악'

10일 오후, 조계종 포교사단이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 중이던 조계사 대웅전에 난입한 종교경찰의 행태에 경악한다. 이는 현 장권이 정치적인 잣대로 불교계를 무시한 처사다.

현대불교신문을 읽고

사형폐지운동에 앞서 업 짓지 않도록 교육강화

3월6일자 현대불교 9면 목어인 '사형제도의 찬반 논란'을 읽고 의견을 적는다.

송광사 주변 골프장건설 '웬말'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에는 토성천교란 문화유산이 있다. 길이 1800m의 산과 산, 계곡과 계곡을 배워 일곱 곳에 축조한 토성천교에는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전설이 전한다.

조성익(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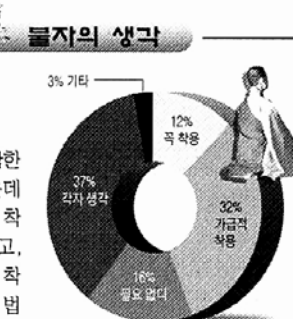
첫 참선·108배·새벽예불 “불교에 눈떴어요”

옥정수 사회복지사 수련회 참가기



지난 9일 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 '대구경북사회복지기관 시설연학회' 불교수련회에 참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했다.

해변 참선, 108배, 새벽 예불 등의 사찰체험은 불교사회복지사로서 자질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법복착용 3%기타 12%목탁용 37%관자성관 32%가급적 착용 16%필요없다

긍정적 54%, “경건해진다”

복 착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 가운데 54%(27명)는 더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이유로 꼽았다.

Advertisement for '법당을 청청껏 제척드립니다.' (We will purify the law hall).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근영불교건축' (Geonyoung Buddhist Construction) and '한국기연구소' (Korea Gas Research Institute).

Large advertisement for '天下名品' (Tianxia Mingpin) featuring various products like '수정구 사용법' (Crystal Ball Usage) and '자연의 힘! 몸속의 노폐물을 뽀아내자!' (Power of Nature! Remove waste from your body!).